

# 한국의 사적원조연결망에 있어서의 상례부조에 관한 연구\*

최 현 숙\*\*

I. 서론	1. 사례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연구의 목적	2. 부조자와 피조자와의 관계
2. 연구의 방법, 조사대상 및 조사도구	3. 부조서비스의 형태
II. 이론적 고찰 및 분석틀	IV. 상례부조의 결정요인 : 가설의 검증결과
1. 이론적 고찰	1. 관계의 특성과 상례부조
2. 한국의 상례부조	2. 사회적 성격과 상례부조
3. 연구의 분석틀	V. 요약 및 결론
III. 상례부조의 원조연결망 : 부의록 사례조사의 결과	1. 연구결과의 요약
	2. 결론 및 제언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

사회복지활동의 실천은 두 가지 측면에서 구분할 수 있다. 한편으로, 국가나 지방정부에 의해서 수행되는 공적부문과 민간기관 및 개인에 의해 수행되는 사적부문으로 구분하고, 다른 한편으로 공식적인 부문과 비공식적인 부문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또한 각각의 개인은 사회관계라는 ‘특별한 망상조직(special plexus)’에 둘러싸여 있으며, 그 망상조직의 구성원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에게 도움을 요구하여 왔다.”

\* 이 논문은 1990.12.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의 일부를 요약한 것임.

\*\* 상지대학교 사회사업학과 조교수

1) R. Pinker, The Idea of Welfare, Heinemann, 1979, p. 49.

2) Ibid., p. 391.

〈그림 1〉 사회복지활동의 실천유형

	공식부문	비공식부문
공적부문	국가·지방정부	
사적부문	기업·민간기관·조직	소집단·개인

사적·비공식적 복지는 질적으로 실질적이고, 일반적인 인식보다 훨씬 더 개인에게 광범위하게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sup>3)</sup> 그동안 사회복지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관심이 매우 적었고, 때로는 전문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그 활동이 부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했었다.<sup>4)</sup>

그러나 사적·비공식적 복지는 공식복지에 비하여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아직도 상대적으로 매우 중요한 복지의 한 영역이다. 문제가 생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원이 필요할 때 공식적인 사회복지 기구보다는 먼저 자기의 가족을 찾아간다. 거기서 받을 지원이 결핍되거나 불충분할 때는 친척이나 친구, 이웃이 가치있는 지원의 원천이 되며, 이것이 모두 불가능할 때 공공기관을 찾아서 공식적인 원조를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호부조는 가장 오래된 사회복지의 전통적인 형태이다. 인간은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서 상호부조하면서 살아가는데, 특히 불운한 상태에 있거나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서로 돕는 데 의의가 있다. 베버리지는 상호부조의 기원을 불운시의 보장에 대한 개인적인 필요와, 동료와 같은 필요를 느낄 때 서로 도움을 줌으로써 모든 사람이 스스로 돕는 것<sup>5)</sup>이라고 설명하였다.

서구의 상호부조는 개별적인 형태에서 비공식 집단화 과정을 거쳐, 공식기관의 공적부문으로의 이전, 즉, 사회보장제도화되었다. 사회보험은 집단적인 상호부조가 공식화된 현대적인 형태라 할 수 있다. 한국의 전통적인 상호부조조직은 조선시대의 향약과 두레, 계, 품앗이, 부조, 부의 등에서

3) Wolfenden Report, The Future of Voluntary Organizations, Croom Helm, 1978, p.12., R.Cecil, J.Offer, and F.ST. Leger, Informal Welfare, Aldershot:Gower, 1987, p.5. 재인용.

4) R. Cecil, J.Offer, and F.ST.Leger, Ibid., p.3.

5) W.Beveridge, Voluntary Action, George Allen and Unwin, 1948, p.9.

찾아볼 수 있고, 현재까지 비공식집단 형태로 유지되면서 민간부문의 복지 기능을 일정하게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사회보장의 실질적인 내용이 미미한 상태이고, 실제로 개인이 질병, 빈곤, 실업 등 불운한 경우나 도움이 필요한 때에 공적부문으로부터 받는 원조는 일반인으로는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생활 상의 복지적인 위험부담을 대부분 개별적인 부조와 소규모의 비공식적인 계(특히 친목계) 및 준공식 형태인 직장의 상호회에서 충당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상호부조의 형태가 민간수준에서 개별적, 혹은 초기 집단형태로 많이 남아있는 현상을 기초로 하여, 한국사회복지에서 사적·비공식적 상호부조의 역할을 확인해 보려고 한다. 공적 사회복지제도가 자원의 한계, 국민간의 개별적, 정서적 연대감의 부족 등 몇 가지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한국과 같은 상호부조 형태는 사회복지의 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상호부조 또는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한 위험이나 사고는 질병, 노령, 사망, 빈곤 등으로 생계수입이 중단되거나 혹은 극히 부족한 상태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여기에다 일시에 목돈을 필요로 하는 관혼상제의 경우를 추가하고 있으며, 상호부조의 경우에는 오히려 후자가 더 강하게 인식되고 있다. 특히 사망시의 경우 서구와 다른 점은, 상을 당한 유가족에 대한 보호보다는 상례를 치르는 비용과 그 과정에서의 도움을 상호부조의 주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개인을 중심으로 상호부조의 사적·비공식적 사회적 연결망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는 상호부조의 구성원, 혹은 상호부조 대상 간의 인간관계와 각각의 상호부조 요소, 즉 인간관계의 특성과 사회적 성격이 상호부조의 내용(부조금액과 부조서비스)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를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와 함께 현대 복지국가에서 위기라고 일컫는 문제점들을 해결, 혹은 완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발견하기 위하여, 한국에서와 같은 상호부조모델을 사회복지조직과 어떻게 연결시키며, 더 나아가 사회복지정책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려 한다.

## 2. 연구의 방법, 조사대상 및 조사도구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사회조사 방법을 병행하였다. 이론적 배경으로서 기존의 가족, 친척 및 친지의 사회적 연결망, 상호부조에 관한 문헌을 검토하였고, 이를 근거로 분석틀과 가설을 설정하여, 한국인의 인간관계와 상호부조 요소, 사회적 성격에 따른 상호부조의 내용 및 형태를 조사하였다.

조사의 도구는 질문지를 이용하였으며, 개별부조에 관한 질문지는 i)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과 상호부조에 대한 의견을 묻는 부분, ii) 응답자가 친지의 상에 부조한 내용을 묻는 부분, iii) 응답자가 친척의 상에 제공한 부조내용을 묻는 부분과, iv) 응답자 본인이 가족상을 당했을 경우, 친지와 친척으로부터 부조받은 내용을 묻는 부분을 분석틀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하였다. 또한 상호부조의 사회적 연결망을 개별적으로 파악해 내기 위하여 iv-1) 응답자 본인이 가족상을 당한 경우, 그에게 부조한 친척과 친지를 대상으로 전수사례조사를 하였다. 이는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방명록, 부조명부 등을 근거로 하여 작성한 것이다.

본 연구의 개별부조에 관한 조사설계는 표본조사의 경우 지역별로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의 세 지역으로 구분하고, 계층별로는 소득·재산·계층의 식에 근거하여 상·중·하로 구분하였다. 연구대상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도시 200명(상 40명, 중 120명, 하 40명), 중소도시 100명(상 20명, 중 60명, 하 20명), 농촌 75명(상 15명, 중 45명, 하 15명)으로, 총 375명이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의 경우, 서울시를 선정하였고, 중소도시로서 강원도 원주시와 전라북도 전주시, 이리시를, 농촌지역으로는 이들 중소도시 지역을 둘러싼 강원도 원주군, 횡성군 일대와 경기도 여주군 일부, 전북 익산군 일대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서울시의 경우 강남의 3개 아파트 지역 및 강북의 10개 동을 표집 대상으로 삼았다.

사례조사의 경우에는 응답자 본인이 가족상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를 지역별로 각각 20명씩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이 때 사례의 표본은 각 등·면 사무소에 비치된 사망신고서를 기준으로 무작위 추출하도록 계획하였으나, 조사 과정에서 임의 표집의 형태로 변경되어 52사례만을 조사하였다. 사례조사의 경우는 부조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행하여지므로 실제 조사 대상자의 표본수는 사례 1건당 50-150개가 된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성 별	범 주	빈 도 수	백분율(%)
성 별	남	178	61.4
	여	112	38.6
연 령	39세 이하	127	43.8
	40-59세 이하	129	44.5
	60세 이상	32	11.0
	무응답	2	0.7
혼인관계	기혼	256	88.3
	미혼	28	9.7
	무응답	6	2.1
학 령	중졸 이하	51	17.6
	고졸	93	32.1
	대졸 이상	141	48.6
	전무응답	5	1.7
직 업	직접영업주	48	16.6
	직접영업부	66	22.8
	무직	25	8.6
	정주	76	26.2
	농기	26	9.0
	무응답	45	15.5
계층의식	상층	47	16.2
	중간층	184	63.4
	하층	56	19.3
월소득	50만원 미만	46	15.9
	50만원이상-100만원미만	108	37.2
	100만원이상	112	38.6
	무응답	24	8.3
재 산	2000만원 미만	28	9.6
	2000만원이상-1억미만	59	20.4
	1억이상	145	50.0
	무응답	58	20.0
거주지	대도시	163	56.2
	중소도시	75	25.9
	농촌	52	17.9
주성장지	대도시	112	38.6
	중소도시	59	20.3
	농촌	108	37.2
	무응답	14	3.8
종 교	불교	56	19.3
	기독교(개신교)	86	29.7
	천주교	35	12.1
	기타	103	35.5
	무응답	7	2.4
합 계		290	100.0

회수된 표본수 294개 중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유효표본수는 290개이며, 사례조사는 유효표본 49사례중 지역별, 상주·비상주별로 구분하여 전형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6사례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표본조사 대상자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위의 <표 1>과 같다.

조사기간은 1990년 10월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 간으로, 훈련받은 상지대학교 사회사업학과, 원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들과 전문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로 실시되었다.

조사자료의 분석은, 사회적 원조연결망을 알아보는 데는 주로 빈도수와 단순상관관계의 통계를 이용하였다. 연구의 분석틀에 따른 상해부조의 결정요인에 관하여 가설 검증을 하는데는, 각 가설에 대한 하부가설을 설정하고, 요인별로 집단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 분산분석(one-way ANOVA)과 다원 분산분석(multi-way ANOVA)을 하였으며, 사후검증으로는 Tuckey 검증을 하였다. 친지와 친척에 대한 부조내용(부조금액과 부조서비스)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T-test를 하였다.

조사의 결과를 분석할 때, 통계적으로  $p < 0.05$ ,  $p < 0.01$ ,  $p < 0.001$ 의 세 수준에서 해석하였다.

## II. 이론적 고찰 및 분석틀

### 1. 이론적 고찰

상호부조의 행동은 타인을 돕는 원조행동으로서 인간의 친사회적 행동 pro-social behavior의 하나이다. 원조행동은 사회적 규범에 일치하는 행동으로서, 그 행동을 취하는 사람의 동기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하여 계획되거나 돕는 행동을 말한다. 그러므로 친사회적 행동이 반드시 이타적이지는 않은 것이다. 친사회적 행동이 이타적이냐 아니냐는 그 원조수행자의 의도에 달려 있다.<sup>6)</sup>

상호부조행위의 기본이 되는 이타적 행위에 대한 이론으로서 본능론, 규

6) D.O. Sears, J.L. Freedom and L.A. Peplau, Social Psychology,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85, p. 301.

범론, 학습이론, 교환이론을 들 수 있다. 사회규범은 사회적 책임의 규범, 호혜성의 규범, 사회정의의 규범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 사람이 사회에서 관계를 맺고 활동하는 범위를 사회적 연결망, 또는 사회망이라 하며, 도움을 주고 받음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사회적 연결망은 사회적 원조연결망, 원조연결망이라 한다.<sup>7)</sup> 워렌은 사회적 연결망의 원조자를 1차적 원조자, 가까운 원조자, 일반전문가로서의 원조자와 전문적 원조자로 구분하여, 1차적 원조자는 배우자와 친척, 친구를 말하며, 가까운 원조자로서 이웃과 동료들 들었으며, 일반전문가인 원조자는 의사나 성직자, 상담자, 교사, 경찰을 들고 전문적 원조자는 사회사업가,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 등을 들고 있다.<sup>8)</sup>

따라서 비공식 복지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상호부조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개인들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동료 등이다. 이들은 개인에게 사적인 원조 연결망을 형성하며, 문제가 생기는 생활상의 사건에 영향을 주어 대응하게 하는 자연적인 지원체계이다. 이를 사적 원조연결망, 비공식 원조연결망이라고 한다. 만일 이러한 원조연결망을 거부하거나 잃게 되면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소외되며, 개인적인 복지문제가 발생하면, 공공복지의 부담을 남게 되는 것이다. 개인은 불안하거나 불행할 때 먼저 비공식적인 원조자원을 찾게 되는데 이때 원조망은 개인에게 정서적 지원, 문제해결에 필요한 특별한 정보를 제공하며, 사망, 질병, 이혼, 이별 등의 개인적인 관계 단절시 이를 채워주는 기능을 하며, 특히 전문가를 신뢰할 수 없거나, 전문가가 주변에 없어서 쉽게 활용할 수 없을 때,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저소득자나 노인, 소수민들은 공식기관이 제공하는 복지의 수혜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개별적인 문제해결이나 생존을 위하여 비전문적인 자원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sup>9)</sup>

비공식적인 사회적 연결망의 또 하나의 기능은 사람들을 1차집단관계로 통합시키는 데 중요한 사회적 지원을 하는 것이다. 사회통합은 참여자가 공통의 관심을 나누는 관계의 망을 의미하기 때문이다.<sup>10)</sup>

7) Ibid., p. 304.

8) I. D. Warren, Helping Networks, Univ. of Notre Dame Press, 1981, p. xi.

9) Ibid., p. 31.

10) I. D. Warren, op.cit., pp. 8-9.

사적 원조연결망에서 상호부조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할킨은 관계의 깊이와 시간, 거리를 변수로 지적하였다.<sup>11)</sup> 웰먼과 버코비츠는 연결망 구성원 간의 접근성의 요소로서 망의 지속기간, 구성원 간의 근접거리와 접촉빈도를 들고 있다.<sup>12)</sup> 그리고 아브람스는 접촉의 강도, 복합성, 범위, 빈도를 상호관계의 변화요소로 지적하고 있다.<sup>13)</sup> 이들의 구분으로부터 상호부조의 사회적 연결망의 관계는 시간성, 근접성(공간적 거리성), 친밀성(사회적 접근성, 혹은 사회적 거리성)의 요소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인의 성별이나 계급 등의 사회적 성격과 상호부조의식도 상호부조 행동에 관련된 사회적 연결망의 유대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들이다.<sup>14)</sup> 그리고, 한국에서의 친척간 관계는 사회적 거리성을 그들 관계의 촌수가 객관적으로 대변해 준다고 할 수 있으므로, 관계상의 촌수가 상호부조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의 하나가 된다.

이와 같은 요소들이 한국의 상호부조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우선 한국의 상례부조의 일반적인 형태가 무엇인지 살펴보겠다.

## 2. 한국의 상례부조

개인이 복지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원천은 I장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법적인 원조, 민간 조직에 의한 원조, 개별적인 원조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에서 개인이 가족등의 상을 당하였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국가에서 국민의 상례시에 제공하는 부조는 공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시행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간기관의 원조는 상호적이 아닌, 일방적인 원조이며, 상례에 관한 원조서비스는 실제로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에 준하는 상호부조 형태로서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거의 모든 직장에 상호부조를

11) *Ibid.*, p.14.

12) R. Pinker, *op. cit.*, p.54.

13) B. Wellman, and S. D. Berkowitz (eds.), *op. cit.*, pp.146-151.

14) M. Bulmer, *op. cit.*, p.84.

15) G. Allan, *op. cit.*, pp.35-40.

M. Bulmer, *op. cit.*, p.84.



위한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데, 공적인 부조가 아니면서도, 공식적인 규정이나 규약에 의하여, 기여와 급여가 이루어지는 상호부조 형태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직장의 상호부조는 민간조직이면서도, 준공공적이라 할 수 있다.

개별적인 원조는 상호부조를 하는데 있어서 일정한 규정이 없이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사적이며 비공식적인 원조이다.

〈표 2〉 상례절차에 따른 서비스 및 원조 제공자의 원조 유형

상례 절차	필요서비스	원조제공자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동료	회원	기타
입종	장례준비	0	0					
	연락	0	0	0			0	
	밤샘문상 음식마련	0	+	+	+	+	+	
염습	염습	0	+				(+)	0
	문상 문상안내		0	0	0	0	0	
	상복 상복짓기	0	+		+		(+)	
치장	택지	0	0				(+)	(+)
	천광		+					0
	사망신고 매장, 화장신고	0	+					+
발인	운구		0	0		+	(+)	+
	발인제 장지동행	0	0	+	+	+	+	
	집, 가족돌보기	0	0	+		+	+	
성분	하관	+	+					0
	봉분	+	+					0
우제	우제참석	0	+					
기타	일상업무처리 위트방문		0	0	0	0	0	

\* '0' 표시는 반드시 참여하는 경우이고, '+' 표시는 흔히 참여하는 경우임. '(+)' 는 상례부조를 전문으로 하는 종교모임의 경우임.

상례 절차에서 필요한 원조는 부의금품 이외에, 호상역할, 장례준비, 음식과 상복 마련, 돈과 물품관리, 치관, 염과 습, 운구와 장지 동행, 택지, 천광과 하관 및 봉분하는 일이며, 그 밖에 집보아주기, 가족 돌보아주기,

일상적인 업무 대신 처리해주기와 장례가 끝난 후 위로해주는 등의 정서적인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사망신고, 매장 혹은 화장 신고 등의 행정적인 처리를 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다. 장례식에서의 사회 등 식의 과정을 담당해 줄 사람들도 중요한 원조자이며, 이 때 가족, 친척과의 결합범위나 친구나 이웃, 동료 등 친지와의 관계가 가장 잘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상례에서의 절차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와 이를 제공할 수 있는 비공식 원조자원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위의 <표 2>와 같다.

상례에 있어서 비공식적 상호부조는 개별부조와 친목계 등 사적인 모임에 있어서의 상호부조를 말한다. 공식, 준공식 상호부조가 주로 물질적 급여에 국한되는 것과는 달리 비공식 상호부조는 물질적인 부조와 함께 비물질적 부조서비스가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상례에 있어서는 때 절차가 주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의식이므로 비공식 상호부조의 형태가 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전통적인 상례는 <주자가례>를 기준으로 형성되어 왔는데, 현대에도 그 절차가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 3. 연구의 분석틀

#### 1) 분석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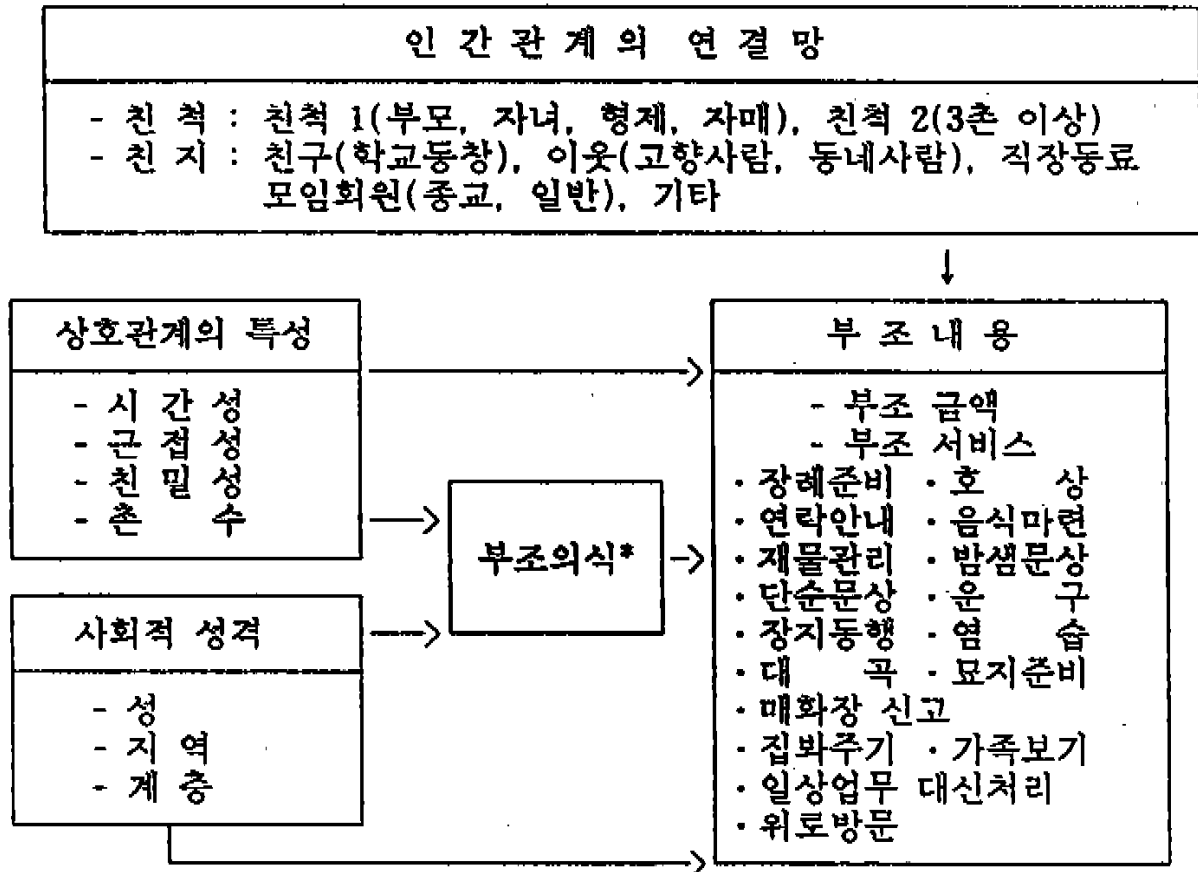
본 연구의 분석틀의 내용은 2가지로 구분된다. 한국인의 상호부조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먼저, 상호부조하는 구성원들의 사회적 원조 연결망의 형태와 그들이 사회적 원조 연결망을 통하여 행하고 있는 상호부조의 내용을 검토하고, 다음으로, 그 부조내용을 결정하는 요인을 발견하는 것이다.

우선 상례에 있어서 인간관계를 통한 사회적 원조 연결망은, 인간관계의 종류에 따라 부조자수로 대표되는 원조 연결망의 크기와 부조금액이나 부조서비스의 가지수 혹은 종류로 나타나는 원조 연결망의 내용(질)으로서 파악하였다. 원조 연결망에 대한 분석은 사례조사와 표본조사의 결과를 각각 구분하여 별도로 절로 서술하였다. 이는 개인의 원조연결망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사례조사와 표본조사에서 각각 나타날 수 있는 한계를 상호보완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한국에서 주고 받는 상호부조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부조의 내용이 어떤 변수에 의하여 결정되는가를 알아보았다. 이는 상호부조에 대한 서비스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밝히기 위하여, 두개의 기본 가설을 설정하였다. 상호부조에서의 부조내용, 즉, 부조금액과 부조서비스는 부조자와 피부조자간의 인간관계의 특성과 부조자의 사회적 성격, 부조자의 부조의식이나 동기 등의 변수에 의해 변화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종속변수인 부조금액과 부조서비스는 상호부조의 구성원이자 대상자인 친척1, 친척2, 친구, 이웃, 직장동료, 종교 및 일반모임의 회원 여부에 따라 각기 상호관계의 특성(시간성, 근접성, 친밀성, 촌수<친척의 경우>) 및 사회적 성격(성, 지역, 계층)이라는 독립변수에 의해 변화한다고 보는 것이다. 여기에 상호부조의식이 작용한다고 보았다.

<그림 2> 연구의 분석틀



\* 부조의식과 다른변수와의 관계는 본 연구에서는 실증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분석틀로만 제시하였다. 이에 관한 분석은 추후의 연구과제이다.

이 상호부조의식은 상호부조하는 구성원의 사회적 성격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종속변수인 부조내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연구의 분석틀을 도표화 하면 위의 <그림 2>와 같다.

## 2) 가 설

상례부조의 내용을 결정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본 연구의 가설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사적·비공식적인 사회적 연결망의 기본이 되는 인간관계 즉, 친척(친척1, 친척2)과 친지(친구, 이웃, 직장동료, 모임회원)의 각각의 변수하에서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1 : 부조자와 피부조자 간의 상호관계의 특성은 부조의 내용과 정도에 영향을 줄 것이다.

1-1. 양자간의 인간관계의 유형에 따라 부조의 내용과 정도가 다를 것이다.

1-2. 양자간의 촌수가 가까울수록 부조의 내용과 정도가 많을 것이다.

1-3. 양자간의 교제기간이 길수록 부조의 내용과 정도가 많을 것이다.

1-4. 양자간의 공간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부조의 내용과 정도가 많을 것이다.

1-5. 양자간의 친밀도가 클수록 부조의 내용과 정도가 많을 것이다.

가설 2 : 부조자와 피부조자의 사회적 성격에 따라 부조의 내용과 정도가 다를 것이다.

2-1. 여자들의 부조내용은 남자보다 제한되어 있을 것이다.

2-2. 지역간의 부조내용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2-3. 사회적 계층에 따라 부조내용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위의 가설을 중심으로 인간관계에서는 친지와 친척으로, 부조내용은 부조금액과 부조서비스를 구분하여, 각각의 하부가설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 Ⅲ. 상례부조의 원조연결망 : 부의록 사례조사의 결과

개인의 사회적 연결망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동료와 모임의 회원 등으로 구성된다. 개인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계를 이 사회적 연결망의 구성에 기초해 구분하면 크게 혈연, 학연, 지연, 직연, 모임연으로 정리할

수 있다.

사적 원조연결망에 대한 분석은 피부조자의 부의록을 자료로 한 사례조사와 표본에 대한 면접조사를 병행하였으나, 본고에서는 사례조사의 결과만을 서술하기로 한다.

사례조사는 가족상을 당한 경우 부조해 온 사람들의 크기와 범위, 부조내용을 사례별로 피부조자들이 보관하고 있는 부의록 전체를 검토함으로써 개인의 사적 원조연결망의 구성과 내용을 파악하였다.

사적 원조연결망의 구성은 가족상을 당한 사람과 그 상에 부조한 사람과의 관계를 부조자의 수를 통하여 살펴보았고, 사적 원조연결망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받은 부조서비스의 종류를 수로 나타내었다. 부조금은 상례의 전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원조해주는 것으로 상례부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별도로 분석하였다.

### 1. 사례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사례조사 대상자의 연령을 보면, 모두 40대 이후로서 40대가 3명, 50대가 1명, 60대가 2명이며, 학력은 대졸 1명, 고졸 2명, 중졸 2명, 국졸 1명이다. 이들의 직업은 서비스직이 3명, 사무직 1명, 농민 1명과 가정주부 1명이었다. 이들 중 자신의 계층이 중간층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3명, 중하층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2명, 하층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1명이었다.

〈표 3〉 사례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사례	성별	연령	학력	직업	계층	소득 수만	재산 수만	거주지	종교	상례 종류	상주 여부
ㄱ씨	남	66	고졸	서비스	중	30	15	대도시	없다	모친상	상주
ㄴ씨	남	45	중졸	서비스	하	34	30	중소도시	없다	처상	상주
ㄷ씨	남	58	대졸	사무직	중	80	5	농촌	없다	부친상	상주
ㄹ씨	여	46	국졸	서비스	중	60	20	대도시	개신교	남편상	아님
ㅁ씨	여	60	고졸	주부	중하	50	50	중소도시	개신교	남편상	아님
ㅂ씨	남	43	중졸	농민	중하	45	60	농촌	없다	부친상	아님

이들의 수입은 30만원에서 80만원의 범위에서, 30만원대가 2명, 40만원, 50만원, 60만원, 80만원대가 각각 1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산정도는 5백만원에서 6천만원까지로 분포되어 있으며, 종교의 경우는 2명이 개신교, 나머지 4명은 종교가 없었다(표 3 참조).

## 2. 부조자와 피조자와의 관계

본 절에서는 상례시 부조해 온 사람들과 피부조자, 즉 상을 당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 개인의 사적 원조연결망의 구성을 파악하였다.

원조 연결망의 종류는 친척1, 친척2, 고향사람, 동네사람, 직장동료, 종교회원, 모임의 회원, 기타로서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례조사 대상자 모두가 친척1, 친척2, 동네사람, 직장동료의 부조를 받고 있었다. 즉,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적 원조연결망 중 혈연, 지연, 직연의 연결망과 모두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동창, 고향사람, 종교회원, 모임회원의 여부는 각 사례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원조연결망의 종류별 부조자수 (단위 : 명, %)

사 례	친 척 1*	친 척 2**	학 교 동 창	고 향 사 람	동 네 사 람	직 장 동 료	종 교 회 원	모 임 회 원	기 타	합 계
ㄱ 씨	18 (12.0)	54 (36.0)	15 (10.0)	- -	12 (8.0)	15 (10.0)	- -	- -	36 (24.0)	150 (100)
ㄴ 씨	23 (15.9)	16 (11.0)	2 (1.4)	9 (6.2)	34 (23.4)	42 (29.0)	- -	14 (19.7)	5 (3.4)	145 (100)
ㄷ 씨	4 (6.0)	11 (16.4)	30 (44.8)	- -	10 (14.9)	5 (7.5)	- -	7 (10.4)	- -	67 (100)
ㄹ 씨	4 (3.4)	25 (21.4)	- -	8 (6.8)	18 (15.4)	13 (11.1)	20 (17.1)	12 (10.3)	17 (14.5)	117 (100)
ㅁ 씨	15 (34.1)	2 (4.5)	7 (15.9)	2 (4.5)	5 (11.4)	10 (22.7)	3 (6.8)	- -	- -	44 (100)
ㅂ 씨	6 (5.8)	31 (29.8)	4 (3.8)	4 (3.8)	41 (39.4)	7 (6.7)	- -	11 (10.6)	- -	104 (100)

주) \* 친척 1은 2촌 이하의 친척(부모, 자녀, 형제, 자매)

\*\* 친척 2는 3촌 이상의 친척을 의미

위의 조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사적 원조연결망 중 혈연, 지연, 직연은 누구나 가지고 있으며, 학연은 학력에 따라, 모임연은 모임에의 가입여부에 따라 그 해당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사적 원조연결망의 형성이 자연적·비공식적 원조연결망과 인위적·비공식적 원조연결망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혈연, 지연, 직연에서의 원조연결망은 개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성격이 강하고, 학연과 모임연은 개인의 의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다음은 이러한 사적 원조연결망의 구체적인 크기와 순위를 살펴보겠다.

사적연결망의 크기는 상례시 부조를 해 온 부조자의 수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부조자의 수는 <표 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44-150명이며, 이 중 100명 이상에게 부조받은 경우가 4사례이고, 50명 이상 100명 미만에게 1사례, 50명 이하가 1사례로 나타나서 상례시 대체로 100명에서 150명 사이의 사람들에게서 부조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조연결망의 종류에 따른 부조자의 수를 많은 순으로 두 가지씩 살펴보면, 혈연은 모든 경우에 포함되고 있으며, 직연, 학연, 모임연, 지연은 개인의 특성에 따라 원조연결망의 범위가 학연은 학력별로, 모임연은 성별로, 지연은 도농간에 다르게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3. 부조서비스의 형태

사례조사 대상자들이 가족상을 당했을 때 사적 원조연결망을 통해서 제공받은 부조 서비스의 형태를 알아보면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16가지 형태의 서비스 중 6가지에서 16가지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공받은 부조서비스가 6가지, 7가지로 가장 적은 두 경우(ㄴ 씨, ㄹ 씨)는 사적 원조연결망의 크기가 가장 큰 부조자가 직장동료와 동네사람인 경우로서, 원조연결망 중 친척1,2 또는 학교동창의 크기가 큰 경우에 비하여 단순하고 의례적인 부조를 주로 제공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위의 두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12가지 형태 이상의 부조서비스를 제공받았고, 특히 여자의 경우는 2명이 각각 15가지, 16가지 형태의 부조서비스를 제공받아서 거의 전 분야에 걸친 원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자가기 때문에 상례시 주변의 도움이 매우 필요한 것으로 사람들이 인식했

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제공받은 부조서비스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모든 경우에 부조금 제공이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부조시 전원이 부조금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해부조의 형태 중 부조금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통상 부의록이 부조금을 제공한 사람의 명단만을 기록하고 있는 관습에서 기인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상례시 제공받는 부조서비스는 혈연과 학연의 원조연결망이 직연이나 지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원조연결망이 남성의 원조연결망보다 크고, 농촌의 원조연결망에 도시의 원조연결망보다 실질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사례별 부조받은 서비스의 종류

사 례	부 조 금 의 공	장 례 준 비	연 락 안 내	음 식 마 련	재 물 관 리	밤 샘	단 위 순 로 분 방 상 문	운 구	장 지 동 행	염 습	대 곡	묘 지 준 비	매 화 장 신 고	집 화 주 기	가 족 보 기	일 대 상 신 업 치 무 리	합 계
ㄱ 씨	150	18	12	6	3	33	102	6	15	12	·	15	·	·	3	·	150
ㄴ 씨	145	1	2	2	·	33	107	·	·	·	·	·	·	·	·	·	145
ㄷ 씨	67	16	12	6	1	13	41	1	10	·	·	1	·	1	1	4	67
ㄹ 씨	117	10	3	12	1	29	91	2	16	7	·	2	3	3	1	4	117
ㅁ 씨	44	10	7	12	4	6	37	4	7	4	4	6	4	4	4	4	44
ㅂ 씨	96	15	3	13	3	·	60	·	·	·	·	10	·	·	·	·	96

상례시의 부조서비스 중 부조금의 제공은 인간관계의 유형에 따라 그 금액의 형태가 달라지게 된다. 그러므로 부조금을 분석함으로써 원조연결망의 질적인 내용을 보다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상례시 제공받은 부조금의 평균과 총액을 토대로 부조서비스에 대한 분석을 추가한다 (표 6, 7, 8 참조).

부조서비스 중 부조금의 평균과 총액을 통해서 원조연결망의 질적 강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평균부조금액을 살펴본다. 전체적인 평균부조금액은 <표 6>과 같이



최저 1.69 만원부터 최고 8.41만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 중 평균부조금액이 7.45만원(ㄱ 씨)과 8.41만원(ㅁ 씨)인 두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1만원-3만원 사이이다. 평균부조금액이 높은 두 경우는 친척 1과 친척 2로 구성된 혈연의 부조금이 전체의 부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7.7%와 75.2%로서 친척 1과 친척 2의 부조비중이 30.1%에서 60.6%인 다른 사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로 인하여 전체 부조금의 평균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보면 부조금의 평균은 부조금 전체 중 혈연의 크기에 크게 영향 받음을 알 수 있다.

<표 6> 원조연결망의 종류별 부조금액

사 례	금 액	친척1	친척2	학교 동창	고향 사람	동네 사람	직장 동료	종교 회원	모임 회원	기 타	합 계
ㄱ 씨	평균 금액	26.29	7.33	3.60	·	1.75	1.80	·	·	4.08	7.45 (150)
	총 금액	473.13 (42.3)	396.06 (35.4)	54.00 (4.8)	·	21.00 (1.9)	27.00 (2.4)	·	·	146.88 (13.1)	1118.07 (100.0)
ㄴ 씨	평균 금액	2.43	1.13	1.00	1.78	1.06	2.29	·	1.00	1.40	1.69 (145)
	총 금액	55.99 (22.8)	18.00 (7.3)	2.00 (0.8)	16.02 (6.5)	36.04 (14.7)	96.18 (39.2)	·	14.00 (5.7)	7.00 (2.9)	245.23 (100.0)
ㄷ 씨	평균 금액	4.00	3.91	1.43	·	1.00	2.00	·	2.00	·	2.03 (67)
	총 금액	15.99 (11.8)	42.90 (31.6)	42.90 (31.6)	·	10.00 (7.4)	10.00 (7.4)	·	14.00 (10.3)	·	135.87 (100.0)
ㄹ 씨	평균 금액	25.00	4.35	·	1.38	1.06	2.77	1.20	1.17	1.88	2.95 (117)
	총 금액	100.00 (29.0)	108.99 (31.6)	·	11.04 (3.2)	19.08 (5.5)	36.01 (10.4)	24.00 (7.0)	14.04 (4.1)	31.96 (9.3)	345.12 (100.0)
ㅁ 씨	평균 금액	18.00	4.00	2.00	20.00	1.00	3.00	1.00	·	·	8.41 (44)
	총 금액	270.04 (73.0)	8.00 (2.2)	14.00 (3.8)	40.00 (10.8)	5.00 (1.4)	30.00 (8.1)	3.00 (0.8)	·	·	370.04 (100.0)
ㅂ 씨	평균 금액	6.17	2.87	4.75	1.25	1.05	1.86	·	1.00	·	2.27 (104)
	총 금액	37.00 (17.0)	89.00 (41.0)	19.00 (8.8)	5.00 (2.3)	43.05 (19.8)	13.02 (6.0)	·	11.00 (5.1)	·	217.07 (100.0)

사적원조연결망의 유형에 따른 평균 부조금액을 살펴보면, 모든 경우에서 친척 1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친척 1의 평균 부조금은 전체 원조망의 평균부조금액에 비해서 1.4배부터 8.5배에 이르러서 사적원조연결망 중 '친척1'의 경우는 3촌 이상의 '친척2'나 '친지'의 경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관계망의 강도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균부조금액이 많은 순으로 두 가지를 살펴보면 모든 경우에 혈연이 포함되며 그 외 지연의 경우가 4개, 학연이 2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서비스의 질적 내용에서 또한 주목할 만한 것은 사적원조연결망 중 동네 사람은 그 크기가 모든 경우에서 4위 이내에 나타났지만 평균부조금액에 있어서는 4위 이내에 나타난 경우가 한번도 없다는 사실이다. 이를 보면 이웃의 경조사에는 빠짐없이 가서 참여하지만 그 원조연결망의 내용은 친척이나 학교동창이나 직장동료보다 제한적이고 의례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사적 원조연결망 중 고향사람의 경우는 이와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고향사람으로부터 원조를 받은 사람은 6명 중 4명인데 크기는 모두 5위안에 들지는 못했으나 평균부조금액은 해당자 4명중 2명이 2위, 1명이 3위에 해당되었다. 그리고 특히 중소도시에 사는 60세의 고졸주부의 경우는 고향사람 2명으로부터 20만원씩 총 40만원의 부조금을 받아서 전체 원조연결망 중 고향사람의 평균부조금액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를 보아 같은 지연이라도 고향사람과 동네사람은 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총부조금액을 보면 1사례(7 씨)의 경우만 1,000만원이 넘고 나머지 모든 사례는 135만원에서 370만원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다. 전체부조금액이 가장 높은 경우가 1,118만원인 경우인데 이때는 혈연의 부조금이 총부조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7.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총부조자의 수도 150명으로 가장 많았다. 두번째로 높은 경우는 370만원인 경우(ㅁ 씨)인데 이 때는 부조자의 수는 44명으로 가장 작았으나 전체 부조금액 중 혈연이 제공한 부조 금액의 비율은 75.2%로서 높게 나타나 총 부조자에 비하여 총 부조액수가 많은 것을 해명해 주고 있다. 또한 총부조금액이 135만원으로 가장 작은 경우(ㄷ 씨) 전체 부조자의 수도 67명으로 작고, 총 부조금액 중 혈연이 제공한 부조금액의 비율도 43.4%로 상대적으로 그다지 높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학연은 31.6%, 모임연은 10.3%, 지연이

7.4%인 것에 비하면 혈연이 여전히 총 부조금액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총 부조금액에 있어서 혈연이 가장 큰 원조연결망이 아닌 것으로 나타난 경우는 한 사례(ㄴ씨)뿐이었다. 이 경우에는 직연이 가장 비중이 높은 39.2%를 차지하고 있고 혈연은 그 다음으로 30.1%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7> 사례별 받은 원조연결망의 크기와 부조금액의 순위

		1 위	2 위	3 위	4 위	5 위
원조연결망의 크기	ㄱ씨 ㄴ씨 ㄷ씨 ㄹ씨 ㅁ씨	혈연 직연 학연 모임연	학연 학연 학연 직연	지연 모임연 지연 모임연	모임연 지연 직연 직연	직연 직연 모임연 모임연 학연
평균부조액	ㄱ씨 ㄴ씨 ㄷ씨 ㄹ씨 ㅁ씨	혈연 학연 학연 학연 학연	학연 직연 직연 학연	직연 모임연 지연 직연	지연 학연 모임연 지연	모임연 지연 모임연 모임연 모임연
총부조액	ㄱ씨 ㄴ씨 ㄷ씨 ㄹ씨 ㅁ씨	혈연 직연 학연 학연 학연	학연 학연 모임연 지연	직연 모임연 직연 학연	지연 지연 학연 직연	모임연 소학연 모임연 모임연

결과적으로 볼 때, 총 부조금액의 경우도 혈연은 모든 경우에 2위 안에 드는데 친척 1과 친척 2의 크기의 비율에 따라 친척 1과 친척 2의 총 부조금액은 달라지고 있다. 혈연 이외에 총 부조금액의 순위가 2위 안에 드는 사적 원조연결망의 종류는 개인적 특성에 따라 학연, 지연, 직연, 모임연 등이 포함되고 있다. 이러한 것은 1경우(ㄹ씨)를 제외하고는 모두 앞에서 분석한 원조연결망의 종류별 크기의 순위와 일치하고 있다.

<표 7>과 <표 8>은 사례별로 받은 원조연결망의 크기와 부조금액 및 부

조서서비스의 순위를 요약한 것이다.

<표 8> 사례별 받은 부조서비스의 종류순위

	1 위	2 위	3 위	4 위	5 위
ㄱ 씨	부조금제공	단순위로	밥 섶	장례 준비	묘지 준비*
ㄴ 씨	부조금제공	단순위로	밥 섶	.	.
ㄷ 씨	부조금제공	단순위로	장례준비	밥 섶	연락 안내
ㄹ 씨	부조금제공	단순위로	밥 섶	장지 동행	음식 마련
ㅁ 씨	부조금제공	단순위로	음식준비	장례 준비	장지 동행
ㅂ 씨	부조금제공	단순위로	장례준비	음식 마련	묘지 준비

\* 장지동행이 포함되어 있음

#### IV. 상례부조의 결정요인 : 가설의 검증 결과\*

조사의 내용을 분석하는데 있어서의 종속변수는 부조의 내용으로서 부조금액과 부조서비스의 2가지로 구분된다. 이 중 부조서비스는 주로 부조한 서비스의 가지수를 보았고, 필요에 따라 부조한 서비스의 종류도 살펴보았다. 모든 요소를 살펴보는대는 응답자가 친지에게 부조한 경우와 친척에게 부조한 경우로 구분하였다. 그 이유는 'T-검증' 결과 두 경우에 해당하는 부조내용이 친지에 대한 평균 9만 2천 5백원이고 서비스에 있어서도 친지 2.31가지, 친척 2.55가지로 현저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만일 이들 두 경우를 함께 취급할 경우 종속변수의 친지, 친척의 경우로 구분하여 볼 때에 비하면 그 평균이 각각 다르게 뭉뚱그려져서 나타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가설은 부조대상(친지, 친척)과 부조내용(부조금액, 부조서비스)에 따른

\* 지면관계상 자세한 분석결과표는 생략하기로 한다.

16) 사회복지에서 부조금의 제공은 부조서비스의 영역에 포함되지만, 다른 비물질적 서비스와 구분되므로 별도로 취급하였다.

하부가설로 세분된다. 각 가설의 하부가설은 가설별로 2개 내지는 12개로 구성된다.

1. 관계의 특성과 상례부조

1) 친지의 인간관계 : 가설 1-1의 검증

가설 1-1(인간관계의 유형에 따라 부조의 내용의 정도가 다를 것이다)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 <표 9>와 같다.

친지의 인간관계에서는 친지관계별로 부조내용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조금액을 가장 많이 내는 친지는 고향사람으로 평균 4만 6천원이며, 학교동창 모임회원, 동네사람, 직장동료의 순으로 나타나며, 부조서비스의 경우에도 인간관계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모임회원이 가장 많고 고향사람, 동네사람, 학교동창, 직장동료의 순으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인간관계의 유형에 따라 부조의 내용과 정도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므로 가설 1-1은 채택되었다.

<표 9> 가설 1-1의 하부가설에 대한 분석결과

번호	가 설	유의수준	검증결과
1 - 1	친지와 의 인간관계유형에 따라 부조의 내용과 정도가 다를 것이다.	—	—
1-1-1	친지관계의 유형에 따라 부조금액의 정도가 다를 것이다.	0.0002	채 택
1-1-2	친지관계의 유형에 따라 부조서비스의 정도가 다를 것이다.	0.0053	채 택

2) 친척의 인간관계 : 가설 1-2의 검증

친척의 인간관계 종류는 촌수로서 알아볼 수 있다. 친척관계에 있어서의 부조내용은 촌수별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조금액의 경우 부모, 형제에 해당하는 1촌과 2촌은 평균 13만 6천 4백 원을 부조함으로써 가장 많은 부조를 하고 있고, 3촌과 4촌은 9만 5백원으로 두 번째이며, 다음이 5촌, 6촌으로서 6만 9천 2백원이며, 비교적 먼 친

척이라고 할 수 있는 7촌 이상의 친척이 6만 6천 3백원으로 가장 적은 액수의 부조금을 내고 있는 것이다. 부조서비스에서도 친척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는 촌수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가족과 형제가 4.02가지의 부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선두로 3, 4촌은 3.53가지, 5, 6촌은 3.48가지, 7촌 이상은 이보다 훨씬 떨어지는 2.16가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와 같이 촌수가 멀수록 부조서비스의 수는 적어지는 것이다.

친지에 대한 부조내용에 비하여, 친척에게 현저하게 많은 부조금과 부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통하여,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여전히 복지욕구의 많은 부분을 가족과 친척을 통하여 충족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가설 1-2의 검증결과 인간관계의 유형에 따라 부조내용과 정도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므로 가설 1-2는 채택되었다. 가설 1-2의 하부가설에 대한 자세한 분석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가설 1-2의 하부가설에 대한 분석결과

번호	가 설	유의수준	검증결과
1 - 2	친척간의 촌수가 가까울수록 부조의 내용과 정도가 다를 것이다.	—	—
1-2-1	친척간의 촌수가 가까울수록 부조 금액의 정도가 많을 것이다.	0.0000	채 택
1-2-2	친척간의 촌수가 가까울수록 서비스의 정도가 많을 것이다.	0.0006	채 택

### 3) 시간성과 상례부조 : 가설 1-3의 검증

시간성은 친지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요소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출생과 동시에 혈연관계로서 인간관계가 맺어지기 때문에 친척과 관련된 교체기간은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

친지의 교체기간별 부조내용의 차이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조금액에 있어서, 교체기간이 길수록 부조금액도 증가하여 교체기간이 3년 미만으로 짧은 경우의 친지에게는 부조금액이 2만 1천 8백원인데 비하여 11년 이상이 되는 친지는 4만 5천원으로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부조서비스의 경우에도 교체기간이 길수록 서비스의 수가 많아져서 교체기간 3년 미만의 친지에게는 평균 1.62가지이던 것이 교체기간이 11년 이상되는 친지에게는 2.51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써 가설 1-3(양자간의 교체기간이 길수록 부조의 내용과 정도가 많을 것이다)은 채택되었다.

가설 1-3의 하부가설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가설 1-3 의 하부가설에 대한 분석결과

번호	가 설	유의수준	검증결과
1 - 3	양자간의 교체기간이 길수록 부조의 내용과 정도가 많을 것이다.	—	—
1-3-1	친지와와의 교체기간이 길수록 부조 금액의 정도가 많을 것이다.	0.0232	채 택
1-3-2	친지와와의 교체기간이 길수록 서비스의 정도가 많을 것이다.	0.0211	채 택

#### 4) 근접성과 상해부조 : 가설 1-4의 검증

근접성은 부조자와 피부조자 간의 공간적 거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양자간의 주거거리에 따라 부조내용에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를 말하는 것이다. 주거거리별 부조내용의 차이에 대한 조사결과는 친지에 대한 평균 부조금액의 차이만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친지에 대한 서비스 수나 친척에 대한 부조금액, 부조서비스 수와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대사회에서는 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인하여 공간적인 거리가 인간관계의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가설 1-4(양자간의 공간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부조의 내용과 정도가 많을 것이다)의 하부가설은 모두 기각되었다.

하부가설에 대한 검증결과는 <표12>와 같다

<표 12> 가설 1-4의 하부가설에 대한 분석 결과

번호	가 설	유의수준	검증결과
1 - 4	친지와 의 공간적거리가 가까울수록 부조의 내용과 정도가 많을 것이다.	—	—
1-4-1	친지와 의 공간적거리가 가까울수록 부조금액의 정도가 많을 것이다.	0.0047	기 각
1-4-2	친지와 의 공간적거리가 가까울수록 부조서비스의 정도가 많을 것이다.	0.7717	기 각
1-4-3	친척과의 공간적거리가 가까울수록 부조금액의 정도가 많을 것이다.	0.5917	기 각
1-4-4	친척과의 공간적거리가 가까울수록 부조서비스의 정도가 많을 것이다.	0.0920	기 각

5) 친밀성과 상해부조 : 가설 1-5의 검증

상호부조에 있어서 친밀성의 정도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어서 친할 수록 부조금액이 많아지며 부조서비스의 수도 많아짐을 알 수 있다.

<표 13> 가설 1-5의 하부가설에 대한 분석결과

번호	가 설	유의수준	검증결과
1 - 5	양자간의 친밀도가 클수록 부조의 내용과 정도가 많을 것이다.	—	—
1-5-1	친지와 의 친밀도가 클수록 부조금액의 정도가 많을 것이다.	0.0057	채 택
1-5-2	친지와 의 친밀도가 클수록 부조서비스의 정도가 많을 것이다.	0.0000	채 택
1-5-3	친척과의 친밀도가 클수록 부조금액의 정도가 많을 것이다.	0.0119	채 택
1-5-4	친척과의 친밀도가 클수록 부조서비스의 정도가 많을 것이다.	0.0000	채 택



가설 1-5(양자간의 친밀도가 클수록 부조내용과 정도가 많을 것이다)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1-5의 하부가설을 분석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 2. 사회적 성격과 상례부조

### 1) 성별 상례부조 : 가설 2-1의 검증

성별 부조내용에 있어서는 가설 2-1(여자들의 부조내용은 남자보다 제한되어 있을 것이다)은 그 일부만이 증명되고 있다. 즉 부조금액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고, 부조서비스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성별부조서비스의 차이는 친지, 친척의 경우 모두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이 부조하며, 친지에 대해서서는 남자, 여자가 각각 2.34 가지, 1.82가지의 도움을 주고 있고, 친척의 경우 남, 녀는 각각 2.81가지, 2.18가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상례에 여자들은 직접 관여하지 않고 남자들이 대표하여 참여하는 관습이 현재에도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는 것이며, 여자가 부조서비스를 하는 경우는 특별히 가까운 관계에 한하여 음식만들기, 집안 일 돕기 등에 참여하는 정도에 그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준다.

<표 14> 가설2-1의 하부가설에 대한 분석결과

번호	가 설	유의수준	검증결과
2-1	여자의 부조내용은 남자보다 제한되어 있을 것이다.	-	-
2-1-1	친지에 대한 여자의 부조금액은 남자보다 제한되어 있을 것이다.	0.0753	기각
2 1 2	친지에 대한 여자의 부조서비스는 남자보다 제한되어 있을 것이다.	0.0103	채택
2-1-3	친척에 대한 여자의 부조금액은 남자보다 제한되어 있을 것이다.	0.3619	기각
2-1-4	친척에 대한 여자의 부조서비스는 남자보다 제한되어 있을 것이다.	0.0211	채택

가설 2-1(여자들의 부조내용은 남자보다 제한되어 있을 것이다)에 대하여 분산분석을 행한 결과 부조내용 중 부조금액의 경우는 가설이 기각되었고, 부조서비스의 경우는 가설이 채택되었다. 가설 2-1의 하부가설을 분석한 결과 <표 14>와 같다.

2) 직업별 상례부조 : 가설 2-2의 검증

지역별로는 친지와 친척의 경우 모두 부조금액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부조가 지역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는 부조서비스의 경우이다.

가설 2-2(지역간의 부조내용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를 분산분석한 결과 부조내용 중 부조금액에 대한 가설은 기각되었고, 부조서비스에 대한 가설은 채택되었다. 가설 2-2의 하부가설을 분석한 결과 <표 15>와 같다.

<표 15> 가설 2-2의 하부가설에 대한 분석결과

번호	가 설	유의수준	검증결과
2-2	지역간의 부조내용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	-
2-2-1	친지에 대한 부조금액의 정도는 지역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0.0546	기각
2-2-2	친지에 대한 부조서비스의 정도는 지역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0.0401	채택
2-2-3	친척에 대한 부조금액의 정도는 지역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0.1545	기각
2-2-4	친척에 대한 부조서비스의 정도는 지역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0.0412	채택

3) 계층별 상례부조 : 가설 2-3의 검증

계층별 변수는 계층의식과 소득, 재산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계층의식 별로 볼 때는 친지에 대한 부조금액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나머지 친지에 대한 부조서비스의 수나 친척에 대한 부조내용에 계층의식이 영향을 주지 않았다.

소득별로는 친지에 대한 부조내용만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재산별로는 친지에게 제공되는 부조금액만이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나머지 친지에게 제공하는 부조내용에 재산정도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6> 가설 2-3의 하부가설에 대한 분석결과

번호	가 설	유의수준	검증결과
2 - 3	사회적 계층에 따라 부조내용과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
2-3-1	친지에 대한 부조금액의 정도는 계층의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0.0437	채택
2-3-2	친지에 대한 부조서비스의 정도는 계층의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0.4230	기각
2-3-3	친척에 대한 부조금액의 정도는 계층의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0.1069	기각
2-3-4	친척에 대한 부조서비스의 정도는 계층의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0.0563	기각
2-3-5	친지에 대한 부조금액의 정도는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0.0115	채택
2-3-6	친지에 대한 부조서비스의 정도는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0.0176	채택
2-3-7	친척에 대한 부조금액의 정도는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0.3335	기각
2-3-9	친지에 대한 부조금액의 정도는 재산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0.0274	채택
2-3-10	친지에 대한 부조서비스의 정도는 재산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0.2877	기각
2-3-11	친척에 대한 부조금액의 정도는 재산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0.5720	기각
2-3-12	친척에 대한 부조서비스의 정도는 재산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0.1395	기각

가설 2-3(사회적 계층에 따라 부조내용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의 사회적 계층은 계층의식별, 소득별, 재산정도별로 나누어 검증하였다. 검증한

결과 계층의식별, 소득별, 재산정도별 친지에 대한 부조금액과 소득별 친지에 대한 부조서비스에 대해서만 가설이 채택되었고, 계층의식별, 재산별 친지에 대한 부조서비스와 친척에 대하여는 모든 경우에 사회적 계층과 부조내용이 무관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이 기각되었다. 가설 2-3의 하부가설에 대한 자세한 검증결과는 앞의 <표 16>과 같다.

## V. 요약 및 결론

### 1. 연구결과의 요약

상례부조에 관한 본 연구는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되었다. 즉 부조를 주고 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한 사적, 비공식적 원조 연결망과 부조금액, 부조서비스로 표시되는 부조의 내용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검토이다.

사적 원조연결망은 인간관계의 유형에 따라 연결망의 크기와 질적인 내용으로 구분하여 사례조사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사례조사에서는 부의록과 함께 피부조자와의 면접에서 얻은 자료를 통하여, 받은 서비스의 구체적인 종류까지 파악하였다.

부조내용의 결정요인은 인간관계의 특성과 부조자의 사회적 성격으로 구분하여 분석틀에 의한 가설을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한국의 사적 원조연결망에 있어서의 상례부조에 관한 연구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상례부조의 원조연결망에 관하여 부의록 사례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적 원조연결망의 구성과 범위 및 정도는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적 원조연결망 구성을 살펴보면, 대체로 혈연, 지연, 직연과는 누구나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으나, 학연, 모임연과는 그렇지 않았다. 학연은 학력과, 모임연은 모임에의 가입여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있어 개인의 특성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사람의 사적 원조연결망은 자연적 사적 원조연결망과 인위적 사적 원조연결망으로 구분되며, 인위적인 원조연결망은 구성원의 선택의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2) 사적 원조연결망의 범위를 부조자 수의 크기로 볼 때, 우리나라 사람은 상례시 대체로 100명-150명에게서 부조를 제공받고 있다. 부조자의 수가 많은 두 가지를 유형별로 분류해 본 결과, 혈연과의 연결망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학연, 직연, 모임연, 지연은 개인별 특성에 따라 상이한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므로 혈연이 일반적으로 가장 큰 원조연결망임에는 이견이 없지만, 학연은 학력이 높을수록 크고, 모임연은 여성의 경우에, 지연은 농촌에서 큰 것으로 나타나, 학연, 모임연, 지연은 개인의 특성에 따라 원조연결망의 범위가 다름을 알 수 있다.

3) 상례시 주고 받은 부조서비스의 수는 대체로 12가지에서 16가지로 분포되고 있고 모든 사례에 있어서 부조서비스는 부조금제공, 단순문상 및 위로방문의 순으로 많이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조금액은 1-3만원이 일반적이었다. 또한 상례시 혈연과 학연이 직연과 지연에 비해 부조서비스의 정도가 높았으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많은 가지수의 부조를 받고 있고, 농촌이 도시에 비해 실질적인 부조를 받고 있었다. 특히 같은 지연의 경우라도 고향사람은 동네사람보다 부조금을 많이 제공하고 있어서 질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사적 원조연결망의 크기와 질에 있어서는 혈연이 다른 관계에 비하여 월등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학연, 지연, 직연은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다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모임연은 원조연결망의 크기나 질에 있어서 가장 비중이 적었다. 또한 사적 원조연결망은 학력별, 성별, 지역별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상례부조의 내용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관한 가설검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가설 1-1인 '부조자와 피부조자(이하 양자)간의 인간관계의 유형에 따라 부조의 내용과 정도가 다를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친지관계의 유형은 부조금액 및 부조서비스의 정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가설 1-2인 '양자간의 촌수가 가까울수록 부조의 내용과 정도가 많을 것이다.'를 검증해 본 결과는 친척간의 촌수가 가까울수록 부조금액의 정도 및 부조서비스의 정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가설 1-3인 '양자간의 교제기간이 길수록 부조의 내용과 정도가 많을 것이다.'는 친지와와의 교제기간이 길수록 부조금액의 정도와 부조서비스의

정도가 많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4) 가설 1-4인 '양자간의 공간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부조의 내용과 정도가 많을 것이다.'를 검증해 본 결과, 공간적 거리는 친지에 대한 부조금액의 정도에만 부의 영향을 미치고 친척의 부조금액과는 무관하며 친지, 친척에 대한 서비스의 정도와도 무관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5) 가설 1-5인 '양자간의 친밀도가 클수록 부조의 내용과 정도가 많을 것이다.'는 친지에 대한 부조금액, 부조서비스와 친척에 대한 부조금액 및 서비스의 정도 모두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6) 가설 2-1인 '여자의 부조내용은 남자보다 제한되어 있을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는 부조금액에 있어서는 남녀의 차이가 없으나 부조서비스의 내용은 친척, 친지 모두에 대하여 남자보다 제한적이었다.

7) 가설 2-2인 '지역 간의 부조내용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는 친척 및 친지에 대한 부조금액의 정도는 도, 농간의 차이가 없었으나 부조서비스의 정도는 농촌의 경우가 도시의 경우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8) 가설 2-3인 '사회적 계층에 따라 부조내용과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계층의식별, 재산별 부조내용은 친지에 대한 부조금액과만 상관성이 있고 친지에 대한 부조서비스 및 친척에 대한 부조내용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별로는 친지에 대한 부조금액 및 서비스의 정도와는 상관성이 있으나 친척에 대한 부조금액 및 서비스의 정도와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상해부조의 사회적인 원조연결망과 부조내용을 결정하는 요인을 검토해 봄으로써, 한국의 상호부조가 친지와 친척이라는 비공식적인 인간관계를 통하여 개인이나 가족의 사고나 위험부담을 보충하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공식적인 복지가 발달한 서구사회에서 드러나고 있는 국민 간의 소외와 재정난 등 여러가지 한계를 볼 때, 우리나라와 같은 비공식적인 상호부조연결망을 계속 유지하면서 공적인 사회복지부문을 발달시킨다면, 그들 나라에서 필연적으로 부딪혔던 문제들을 담

습하지 않고 이를 발전적으로 극복하며 복지사회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비공식적인 복지부문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양상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의의가 있고 본 연구는 그러한 의미에서 일조를 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그런데 비공식복지는 개인적인 연결망의 크기와 관계의 질에 따라 차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도움이 필요할 때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비공식복지는 개인이나 가족의 재난이나 불운에 대하여 중요한 방어선이 될 수 있지만, 문제의 해결을 위한 보장이 공식복지처럼 일정하지 않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공식복지는 공식복지와 관련하여 발전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비공식복지에 대한 공식복지체계의 개입방법으로는 첫째, 공식기관의 실제적 혹은 잠재적인 원조대상자에게 초점을 두어, 그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자원을 제공하고 있는 자연적인 원조자들을 돕는 것이다. 즉,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원조기능을 유지시키면서 그들이 줄 수 없는 특수한 서비스를 피원조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가족 중에 환자나 요보호자가 있을 때 유용하게 활용되는 방법이다.

두번째는 비공식체계의 능력을 전반적으로 증가시켜 주는 방법이다. 공식기관이 비공식조직의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비공식조직의 사회적 연결망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다. 연결망 내의 주요 인물이나 조직에 도움을 줄 사람을 찾아내어 그들에게 자원에 대한 정보나 의사전달 기술, 위기개입 기술 등을 훈련시키는 일 등을 들 수 있다.

세번째는, 지역사회나 이웃에 초점을 두는 방법이다. 전문가가 지역사회의 주민에게 공동 관심사나 문제를 규정하도록 독려하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원을 당국에 요구하거나 압력을 가할 수 있도록 조직을 형성하며, 비공식 체계에서 쓰여지고 있는 자원을 확인하여, 더 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게 하는 것이다.

위의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두번째 모델은 집단적인 비공식 상호부조 조직에 대한 개입으로서, 현재 한국사회에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많은 비공식 원조연결망을 강화해 주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여겨진다. 즉, 비공식 체

계로서의 이웃관계, 동창, 친구관계, 기타 취미·교제관계의 조직에 대하여, 장소를 제공하는 등 모임의 기회와 비용을 일부 제공하여 주고, 직장이나 단체의 사적인 모임을 지원하여 줌으로써, 그들 상호간의 유대를 돈독히 하여 상호부조의 여건을 마련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공식 복지부문에서 비공식 원조체계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으나, 장차 필연적으로 이에 대한 인식을 구체화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공식복지가 발달한다 하더라도, 비공식적 원조 연결망을 먼저 이용하겠다는 사람이 전체의 1/3인 것을 보면, 우리나라에서의 비공식적 원조연결망은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더우기, 기존의 선진 복지국가들이 보다 나은 복지사회의 구현을 위한 발전적인 방향으로 비공식 원조연결망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에서 이미 오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형성·발전되어 온 비공식 원조연결망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비공식 원조연결망에 대한 사회적인 개입은 아직 충분히 연구되지 않은 과제이다.

앞으로는, 비공식 원조연결망과 공식 복지부문에서의 전문적인 원조를 연결시키는 방법에 관한 연구와 함께, 한국 사회의 비공식 원조연결망의 실태와 부조관행에 관한 시계열적인 연구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문조. "사회망 분석의 기본 원리 및 절차." 사회구조와 사회사상, 황성모 박사 회갑 논문집, 심설당, 1987.
- 김영모. 한국사회복지의 제문제, 서울 :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1986.
- , 현대사회복지론, 서울 :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1985.
- 김용학. "사회 연결망 분석의 이론틀 : 구조와 행위의 연결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 21 집, 1987.
- , "사회 연결망 분석의 기초개념 : 구조적 개념과 연결망 중심성을 중심으로," 인문과학, 제 58 집, 1987.



- 김주희. "품앗이와 정 : 한국 농촌 인간관계의 기본 유형." 한상복 편, 한국인과 한국 문화 : 인류학적 접근, 서울 : 심설당, 1988(1982).
- 롭슨, W.A., 김영모 역. 복지국가와 복지사회 : 환상과 현실, 서울 : 경문사, 1979, 1982.
- 성병희. "상장례에 있어서의 여성의 역할." 효성여대, 여성문제연구, 제 11 집.
- 오승환. 도시빈민의 사회적 관계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 이광자. 우리나라 친족관계의 지속과 변화에 관한 연구 : 도시 중산층 핵가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 이민수 편역. 관혼상제, 서울 : 을유문화사, 1975.
- 이용교. "사회관계망이 상호부조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 15 호, 1990.
- 장철수. 한국 전통사회의 관혼상제, 서울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 크로포트킨, 하기락 역, 상호부조론, 서울 : 형설출판사, 1983.
- 한국여성개발원. 영세지역 가족관계 및 사회적 연결망에 관한 연구, 1990.
- Allan, Grahams, Friendship - Developing a Sociological Perspective, Boulder and San Francisco : Westview Press, 1989.
- Barclay Report, Social Workers : their roles and tasks, London : Bedford Square Press, 1982.
- Berger, Peter L. and R.J.Neuhaus. To Empower People : The Role of Mediating Structures in Public Policy, Washington D.C. :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s for Public Policy Research, 1981(1977).
- Beveridge, W. Voluntary Action - A Report on Method of Social Advance, London : George Allen and Unwin, 1948.
- Bulmer, Martin. Neighbours : The Work of Philip Abrams, Cambridge Univ. Press, 1986.
- Cecil, R., J.Offer, and F.St.Leger. Informal Welfare : A Sociological Study of Care in Northern Ireland, Aldershot, Gower, 1987.
- Fisher, C.S. et al. Networks and Places : Social Relations in the Urban

- Settings, New York : The Free Press, 1977.
- Gottlieb, Benjamin H. Social Support Strategies : Guidelines for Mental Health Practice, Beverly Hills : Sage Publications, 1983.
- Gottlieb, Benjamin H. and David M. Todd. "Characterising and Promoting Social Support in Natural Settings," in Social and Psychological Research in Community Settings : Designing and Conducting Programs for Social and Personal Well-Being, by R.F. Munoz et al., San Francisco : Jossey-Bass Pub, 1985(1979).
- Konke, David and J.H. Kuklinski. Network Analysis, Quantitative Applications in the Social Sciences Series 28, Sage Pub., 1982.
- Mauss, Marcel, (trans. by Ian Cunnison). The Gift : Forms and Functions of Exchange in Archaic Societies, New York : The Norton Library, 1967,
- Mitchell, J.C. (ed.). Social Networks in Urban Situations, Manchester : Manchester Univ. Press, 1969.
- Munoz, R.F., et al. Social and Psychological Research in Community Settings : Designing and Conducting Programs for Social and Personal Well-Being, San Francisco : Jossey-Bass, 1985.
- O'brian, David J. Neighborhood Organization and Interest Group Processes, Princeton Univ. Press, 1975.
- Pinker, R. The Idea of Welfare, London, Heinemann, 1979.
- Sears, David O., J.L. Freedom and L.A. Peplau. Social Psychology,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1985(1970).
- Titmuss, Richard M. The Gift Relationship : From Human Blood to Social Policy, London : George Allen and Unwin, 1970.
- Warran, I. Donald. Helping Networks : How People Cope with Problems in the Urban Community, Univ. of Notre Dame Press, 1981.
- Wellman, Barry, and S.D. Berkowitz (eds.). Social Structures : Network Approaches, Cambridge Univ. Press, 1988.